

사회와 문화의 시스템에 대한 풍자적 내러티브

글. 윤진섭 (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 호남대 교수)

데비 한 작품의 대다수는 사회적 콘텍스트와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상의 비너스>(2006-)와 <여신들>(2007-) 연작이다. 이 연작들은 '0.618:0.382'라는 폴리클레이토스(Polikleitos)의 미의 표준율(canon)에 의해 제작된 희랍의 고전기 조각을 한국 여인의 평범한 몸으로 대체한 사진 작품들이다. 즉 얼굴은 서구적 미인의 표상인 비너스의 모습을 취하되, 몸은 평범한 한국 여인의 것을 촬영하여 디지털로 합성한 것이다. 사진 속에서 검은 색 바탕에 희게 드러난 여인의 몸은 섬세한 디지털 작업을 거쳐 매끄러운 대리석 조각의 질감으로 바뀌어 있다.

<걷는 삼미신(三美神)>(2007)은 희랍의 고전적 미인의 화신인 비너스와 아리아스의 얼굴에 한국 여인의 몸을 합성한 작품이다. 그녀는 이들 세 여신을 '조각화'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을 융합시킨다. 서구의 얼굴에 동양의 몸을 결합시킨 이 작품을 통해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이 작품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는 '조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이화(異化)와 동화(同化)가 빚어내는 상호 모순은 그녀의 작품이 충격적이면서도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돼 준다.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상이한 문화권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몸짓이 지닌 문화적 함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한 것인지도 모른다. 즉, 단순히 보이는 하나의 몸짓이나 행동도 고유한 문화권 내에서 형성된 오랜 사회적 관습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관객의 다양한 해석과 반응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데비 한은 이 <여신들> 연작을 통해 관념화된 미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해체하여 본래의 한국 여성에 내재된 미의 특질을 복원하고자 한다. 여기서 '관념화된' 미인이란, 그녀의 말을 빌리면, "미술관이나 미술책에서 볼 수 있는", 마치 비너스를 연상시키는 서구적인 완벽한 얼굴을 가리킨다. 소위 '조각적인' 얼굴과 팔등신의 늘씬한 몸매는 오늘의 한국 젊은 여성들이 선망하는 체형이 아닌가.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무비판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사회적 관행에 대해 <여신들> 연작을 통해 강한 태클을 걸고 있다. 그녀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한다. '지금 그리고 여기(hic et nunc)'에 주목하여 한국의 평범한 여인들의 일상적인 몸짓과 자태에서 보이는 아름다움의 특질에 대해 주목하자고 목소리의 톤을 높인다. 그래서 그녀는 과감히 희랍의 전형화된 미인의 얼굴(비너스로 대변되는)에 한국 여인의 평범한 몸을 결합한 것은 아닐까. 비너스 혹은 아리아스의 얼굴에 한국 여인의 신체를 결합하여 굳이 <여신들>이란 타이틀을 붙인 까닭은 다시 그녀의 말을 빌리면, "서구문화와는 구별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미적 아이덴티티를 서구적인 관점이 아닌 아시아 문화의 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여신들> 연작을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단순한 비판이 아닌, 현실에 대한 응시를 통해 서구와 한국 내지는 아시아라는 두 문화권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서구와의 이상적인 하모니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순된 현실"을 드러내하고자 한다. 그녀는 이 연작을 통해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미의 진정한 모습이란 과연 무엇인가?"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